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2/20

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?

지난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.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하며 대북 제재 합의에 나섰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한국갤럽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006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 위협, 남북통일, 김정은 이미지 등 북핵과 대북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2월 13일~15일(3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,006명
5. 표본오차: $\pm 3.1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6%
7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‘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’: 76%
-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: ‘찬성’ 64% vs. ‘반대’ 28%
- ‘대북 지원 전면 중단’ 46% vs. ‘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’ 47%로 의견 양분돼
- ‘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’ 61%, ‘하루빨리 이뤄져야’ 16%,
‘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’ 21% - 3차 핵실험 전후 통일 의식에 변화 없어 -
- ‘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호전적인 인물’ 62% vs. ‘평화지향적인 인물’ 10%
- 누가 더 호전적인가? ‘김정은’ 38%, ‘김정일’ 29%

‘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’: 7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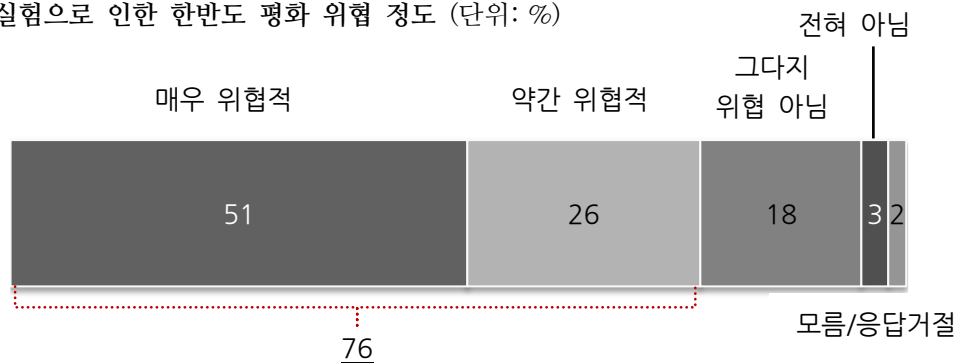
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인식했다.

한국갤럽이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,006명에게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묻은 결과

‘매우 위협적’ 51%, ‘약간 위협적’ 26%로, 모두 76%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. 반면 ‘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’ 18%, ‘전혀 위협적이지 않다’ 3%로 21%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했다. ‘모름/응답거절’은 2%였다.

전 연령에 걸쳐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특히 20대(82%)와 60대 이상(81%)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, 40대(68%)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.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무당파(73%)보다 새누리당 지지자(82%)에서 더 위협적이라고 인식했다.

▶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 위협 정도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(명)	(매우+약간) 위협적이다	(그다지+전혀) 위협적이지 않다	모름/응답거절
전체		1,006	76	21	2
성별	남성	498	77	22	2
	여성	508	76	21	3
연령별	19~29세	181	82	16	2
	30대	205	74	25	1
	40대	219	68	29	3
	50대	191	78	21	1
	60세 이상	210	81	15	5
주요 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406	82	17	1
	민주통합당	268	73	25	2
	지지정당없음	289	73	23	4

질문)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는데요. 귀하께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: '찬성' 64% vs. '반대' 28%

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, '찬성' 64%, '반대' 28%로, 찬성 의견이 두 배 이상이었다.

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찬반이 같았으나, 30대부터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이 반대보다 증가했으며,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(74%)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.

▶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찬성	반대	모름/응답거절
전체		1,006	64	28	7
성별	남성	498	65	29	6
	여성	508	64	28	9
연령별	19~29세	181	48	44	8
	30대	205	53	39	8
	40대	219	63	31	6
	50대	191	<u>79</u>	17	4
	60세 이상	210	<u>78</u>	13	9
주요	새누리당	406	<u>74</u>	21	5
지지	민주통합당	268	59	35	6
정당별	지지정당없음	289	59	30	12

질문) 귀하께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, 반대하십니까?

'대북 지원 전면 중단' 46% vs. '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' 47%로 의견 양분돼

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,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'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'가 46%, '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'가 47%로, 의견이 양분됐다. '모름/응답거절'은 7%였다.

대북 지원 전면 중단 의견은 60세 이상(57%)에서 많은 반면

인도적 대북 지원 의견은 30대(56%), 40대(62%)에서 많았다.

지지 정당별로 보면, 새누리당 지지자는 '대북 지원 전면 중단'(57%),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'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'(59%)에 더 공감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.

▶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대북 지원 전면 중단	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	모름/ 응답거절
전체		1,006	46	47	7
성별	남성	498	44	<u>52</u>	4
	여성	508	48	42	10
연령별	19~29세	181	<u>49</u>	44	7
	30대	205	<u>39</u>	<u>56</u>	5
	40대	219	35	<u>62</u>	3
	50대	191	<u>50</u>	43	6
	60세 이상	210	<u>57</u>	30	13
주요 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406	<u>57</u>	36	7
	민주통합당	268	38	<u>59</u>	3
	지지정당없음	289	41	48	11

질문)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'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'는 의견이 있는 반면

'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'는 의견이 있습니다. 귀하는 이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?

'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' 61%, '하루빨리 이뤄져야' 16%,

'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' 20%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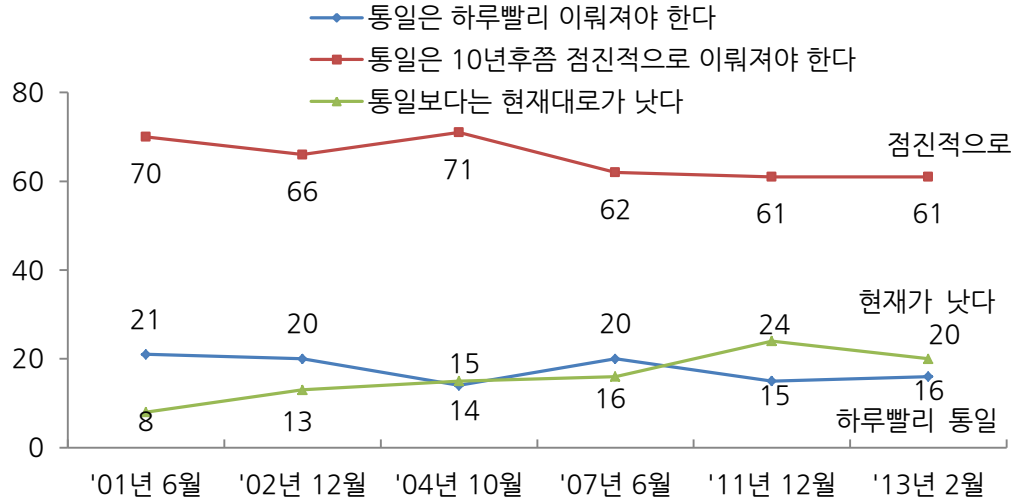
- 3차 핵실험 전후 통일 의식에 변화 없어 -

남북통일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'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'는 의견이 61%로 가장 많고 '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' 20%, '통일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' 16%로,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.

2000년 이후 (하루빨리+점진적으로)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,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3차 핵실험 이전인 2011년 12월 대비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.

응답자 특성별로 보면, 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증가했고 저연령일수록 점진적 통일 방안에 더 공감했다. 또한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은 남성(13%)보다 여성(27%)에서 많았다.

▶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(명)	통일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	통일은 10년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한다	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	모름/응답거절
전체		1,006	16	61	20	3
성별	남성	498	17	68	13	2
	여성	508	14	54	27	4
연령별	19~29세	181	7	70	22	1
	30대	205	13	66	20	1
	40대	219	14	64	20	2
	50대	191	18	60	18	5
	60세 이상	210	25	47	20	8
주요 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406	17	57	23	4
	민주통합당	268	17	64	18	1
	지지정당없음	289	14	63	18	5

질문) 남북통일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십니까? (3 가지 의견 제시)

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호전적인 인물' 62% vs. '평화지향적인 인물' 10%

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'호전적인 인물'이라는 응답이 62%, '평화지향적인 인물'이라는 응답이 10%로,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. '모름/응답거절'은 27%였다.

김정은이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많은 가운데

남성(59%)보다는 여성(66%)에서, 연령별로는 20대(73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

지지 정당별로도 김정은을 호전적 인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.

▶ 김정은에 대한 인식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호전적	평화지향적	모름/응답거절
전체		1,006	62	10	27
성별	남성	498	59	11	30
	여성	508	<u>66</u>	10	25
연령별	19~29세	181	<u>73</u>	11	16
	30대	205	64	15	22
	40대	219	58	12	30
	50대	191	61	8	31
	60세 이상	210	58	6	37
주요 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406	67	7	26
	민주통합당	268	66	13	21
	지지정당없음	289	55	10	36

질문)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인데요. 귀하께서는 김정은이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평화지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누가 더 호전적인가? '김정은' 38%, '김정일' 29%

김정은과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중 누가 더 호전적인지를 묻은 결과 '김정은이 더 호전적' 38%, '김정일이 더 호전적' 29%로, 김정은을 더 호전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.

성별로는 남성(33%)보다 여성(42%)이, 연령별로는 30대(43%)와 50대(43%)가 타 연령대에 비해 김정일보다 김정은을 더 호전적 인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.

▶ 김정은 vs. 김정일 호전성 평가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김정은이 더 호전적	김정일이 더 호전적	비슷하다	모름/응답거절
전체		1,006	38	29	22	12
성별	남성	498	33	34	21	12
	여성	508	<u>42</u>	23	22	13
연령별	19~29세	181	34	32	<u>25</u>	9
	30대	205	<u>43</u>	28	21	8
	40대	219	36	<u>33</u>	17	14
	50대	191	<u>43</u>	26	21	11
	60세 이상	210	33	23	<u>25</u>	19
주요 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406	38	28	23	10
	민주통합당	268	41	34	18	8
	지지정당없음	289	33	27	23	17

질문) 김정은과 김정일 중 누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